

불안척도에 의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중훈 · 박병탁 · 정성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복수 · 정종학

서론

일상생활의 과학화로 의식주 생활의 개선과 의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기술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연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mean length of life)이 1965년에 남자 52.7세, 여자 57.7세였는데 1979년에는 각각 62.7세 및 69.1세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계속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면 1990년에는 남녀 각각 67.1세 및 73.6세, 그리고 2,000년에는 69.3세 및 76.2세로 추산되므로 구미선진국의 현재 평균수명수준에 까지 도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구성비로 보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8%이지만 2,000년대초가 되면 선진국형인 10%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²⁾.

이러한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 현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적변화 때문에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노화현상과 함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연령층 보다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산업화와 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핵가족화 됨으로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물론 정년퇴직으로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노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⁴⁾⁵⁾. 실제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신경증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⁶⁻⁸⁾.

불안증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증세로 그 발생율은 전체인구의 약 2~4%로 추정하고 있다⁹⁾.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고려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

을 통해 겪고 있는 신경증 가운데 불안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은 향후 노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자들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그 결과 몇가지 유의한 성적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차후 노인의 안정된 정서생활의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으로는 1983년 10월 부터 11월 까지 2개월간 대구직할시 및 경산군의 각 1개 보건소에 내원한 60세 부터 85세 이하의 노인들을 일차 대상으로 택했으며 추가로 1984년 4월 부터 6월 까지 3개월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개 노인학교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851명으로 남자가 329명(38.7%)이었으며 여자가 522명(61.3%)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73.5세, 여자가 73.7세로 성별 연령차이는 없었다.

조사방법으로는 Zung이 교안한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이하 SAS로 약함)를 사용 하였다(부록 참조). 상기 척도는 이미 국내에서 빈번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보편화된 검사기구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¹⁰⁻¹²⁾. 이 척도는 설문내용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피검자가 스스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된 점수는 높을 수록 불안이 심한 상태로 간주되며 50점 이상의 고득점일 경우를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다¹³⁾.

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

량분석 및 t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보았다.

성 적

SAS로 평가된 남자노인군의 평균총점은 41.12였고 여자노인군은 44.92로서 여자노인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인정할 수 없었다.

항목별 평가중 남자노인군이 높게 나타낸 것은 진담나기(sweating), 우려(apprehension), 호흡곤란(dyspnea), 안절부절(restlessness), 불면(insomnia) 등이었고, 여자노인이 높게 나타낸 것도 동일 항목이나 그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특히 여성군에서 불안감(anxiousness), 두려움(fear), 공황(panic), 정신적 붕괴(mental disintegration), 전신통증(body aches and pains), 피로감(fatigue), 심계항진(palpitation), 현훈(dizziness), 졸도감(faintness), 호흡곤란(dyspnea), 이상감각(paresthesias), 소화불량(indigestion) 그리고 불면증(Insomnia)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노인이 공통적으로 하위점수로 평가한 5개항목은 최하위 부터 졸도감, 공황, 공포, 진전(tremors), 적면(facial flushing)이었다(표 1).

남자노인의 SAS에 의한 평균총점의 분포는 20점대가 7.9%, 30점대가 34.3%, 40점대가 43.2%, 50

점대가 12.2% 그리고 60점대가 2.4%로서 50점이상이 14.6%였다. 여자노인의 평균총점 분포는 20점대가 6.3%, 30점대가 21.6%, 40점대가 42.7%, 50점대가 23.3%, 60점대가 5.6% 그리고 70점대가 0.8%로서 50점이상이 29.4%로 나타나 남자노인군보다 현저히 높은 성적을 보였다(표 2).

연령증가에 따른 불안성적의 유의차는 인정할 수 없었으나 남녀 양군간의 비교에서 65~79세 사이의 여자군이 남자군 보다 높은 성적을 보였다($p < 0.01$).

직업 유무에 따른 성적은 생업을 그만둔지가 오래된 노인일수록 불안정도가 높았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남자는 72.9%, 여자는 81.0%로 전체 대상군의 77.9%였고 이중 여자노인군이 남자노인군에 비해 높은 불안성적을 보였다($p < 0.01$).

부양자별 불안성적은 남녀군에서 공공복지기관과 친척집에 기거하는 노인들이 높은 불안성적을 보였으나 사별수가 적어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교육정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나 무학군에서 여자노인이 남자에 비해 높은 불안성적을 보였다($p < 0.01$).

현거주지별로는 대도시나 중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남녀노인 모두가 더 높은 불안성적을 보였다($p < 0.01$).

Table 1. Mean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in the aged

Item of SAS	Male(N=329) M+SD	Female(N=522) M+SD
1. Anxiousness	1.91±0.88	2.06±0.91*
2. Fear	1.54±0.71	1.72±0.85***
3. Panic	1.53±0.70	1.75±0.84***
4. Mental disintegration	1.72±0.83	1.99±0.93***
5. Apprehension	2.95±1.05	3.07±1.07
6. Tremors	1.64±0.89	1.70±0.92
7. Body aches & pains	2.18±0.99	2.59±0.95***
8. Fatigue	2.12±0.92	2.43±0.90***
9. Restlessness	2.81±1.05	2.94±1.01
10. Palpitation	1.78±0.87	2.22±0.95***
11. Dizziness	1.84±0.95	2.25±0.97***
12. Faintness	1.46±0.67	1.69±0.81***
13. Dyspnea	2.83±1.09	2.99±1.10*
14. Paresthesias	1.97±0.91	2.17±0.96**
15. Indigestion	1.75±0.97	1.99±1.04***
16. Urinary frequency	2.05±1.06	2.14±1.11
17. Sweating	2.97±1.19	2.82±1.22
18. Facial flushing	1.68±0.95	1.70±0.89
19. Insomnia	2.57±1.13	2.79±1.11**
20. Nightmare	1.83±0.87	1.91±0.93
Total	41.12±8.38	44.92±9.50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2. Total score distribution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in the aged

Total score	Male (N=329)	Female (N=522)
20-29	7.9%	6.3%
30-39	34.3	21.6
40-49	43.2	42.7
50-59	12.2	23.0
60-69	2.4	5.6
70-79	0.0	0.8

종교별로는 무교와 기독교에서 여자노인군이 남자노인군 보다 높은 불안성적($p < 0.01$)을 보였으며 천주교에서는 남녀 모두 높은 불안을 나타내었는데

사태수가 적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잡비의 다소에 따른 성격은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월 1만원 미만의 잡비를 쓰는 노인이 남자 52.3%, 여자 65.3%로 평균 60.3%나 되었다.

자신의 성취도에 따른 불안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여자노인이 남자에 비해 "후퇴되는 일이 가끔 있었다"($p < 0.001$)와 "플만이 많다"($p < 0.01$)의 항목에서 불안성적이 높았다.

근래에 개별 걱정되는 일에 대한 질문과 불안성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높게 평가된 항목은 남녀 모두 건강문제, 자녀문제와 경제문제의 순이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군에서 더 높은 불안성적($p < 0.01$)을 나타내고 있다(표 3).

Table 3. Mean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in the aged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

Factors	Male		Female	
	No. (%)	Mean (SD)	No. (%)	Mean (SD)
Age (yrs.)				
60-64	33(10.0)	40.3 (9.4)	74(14.2)	43.6(12.0)
65-69	123(37.4)	41.2 (8.5)	168(32.2)	45.0 (9.1)***
70-74	97(29.5)	41.6 (7.4)	167(32.0)	45.1 (8.8)***
75-79	59(17.9)	40.6 (9.1)	87(16.7)	45.2 (9.3)**
80-84	17 (5.2)	41.8 (7.4)	26 (5.0)	44.5(10.3)
Career				
1. Having a job	89(27.1)	41.4 (7.3)	99(19.0)	46.1 (7.7)***
2. Retired, less than 1 yr.	12 (3.6)	38.2 (7.6)	22 (4.2)	44.1 (8.5)*
3. Retired, 1-5 yrs.	46(14.0)	40.7 (8.8)	52(10.0)	45.5(10.0)*
4. Retired, 6-10 yrs.	70(21.3)	40.3 (8.8)	119(22.8)	44.1 (9.2)**
5. Retired, 11-20 yrs.	65(19.8)	40.3 (8.2)	94(18.0)	43.0 (9.2)
6. Retired, 21 yrs. & over	47(14.3)	44.2 (8.9)	136(26.1)	46.1(10.7)
Supporter				
1. Self	96(29.2)	40.8 (8.1)	110(21.1)	46.6 (8.5)***
2. Spouse	39(11.9)	42.2 (7.9)	35 (6.7)	44.1 (8.1)
3. Sons	167(50.8)	40.6 (8.3)	288(55.2)	44.0 (9.7)***
4. Daughters	14 (4.3)	41.7(11.1)	34 (6.5)	43.5(10.0)
5. Relative	3 (0.9)	45.3 (8.7)	15 (2.9)	47.1(12.7)
6. Public welfare	10 (3.0)	47.1 (6.2)	40 (7.7)	48.0 (8.3)
Education				
1. Illiteracy	195(59.3)	42.8 (8.1)	404(77.4)	46.0 (8.9)***
2. Elementary school	73(22.2)	40.3 (8.3)	87(16.7)	42.0(10.3)
3. Middle school	23 (7.0)	39.6 (7.0)	19 (3.6)	40.9(11.2)
4. High school	28 (8.5)	36.9 (7.1)	12 (2.3)	37.3 (9.8)
5. College	10 (3.0)	29.3 (5.3)	0 (0.0)	0.0 (0.0)
Living place				
1. City	159(48.3)	40.2 (9.2)	280(53.6)	44.1(11.1)***
2. Town	37(11.2)	38.7 (7.0)	59(11.3)	44.1 (7.1)***
3. Fishing & agrarian villages	133(40.4)	43.0 (7.2)	183(35.1)	46.5 (7.0)***

Religion

1. No	184(55.9)	41.9 (7.8)	150(28.7)	45.9 (9.1)***
2. Christian	43(13.1)	38.6 (8.3)	102(19.5)	43.3 (9.4)**
3. Catholic	16 (4.9)	42.4 (8.4)	58(11.1)	48.0(10.9)*
4. Buddhist	75(22.8)	40.9 (9.5)	199(38.1)	44.1 (9.2)*
5. Others	11 (3.3)	38.0 (7.2)	13 (2.5)	45.8 (8.0)*

Sundries per month

1. under 1,000 won	35(10.5)	39.8 (9.0)	105(20.1)	47.0 (8.9)***
2. under 5,000 won	78(23.7)	42.2 (8.4)	142(27.2)	46.4 (8.7)***
3. under 10,000 won	59(17.9)	41.5 (7.5)	94(18.0)	44.3 (9.1)*
4. under 20,000 won	53(16.1)	42.3 (7.6)	67(12.8)	45.4 (7.7)*
5. under 30,000 won	45(13.7)	40.0 (9.0)	33 (6.3)	40.7(10.0)
6. under 40,000 won	26 (7.9)	41.0 (9.3)	28 (5.4)	44.2(13.6)
7. under 50,000 won	19 (5.8)	39.4 (8.1)	22 (4.2)	39.8(10.1)
8. under 100,000 won	12 (3.6)	38.6 (8.5)	14 (2.7)	44.6 (7.6)
9. under 200,000 won	2 (0.6)	44.5 (1.5)	17 (3.3)	37.8(11.3)*

Achievement

1. Satisfaction	82(24.9)	31.4 (7.5)	104(19.9)	39.1 (9.5)
2. Regret	166(50.5)	41.3 (8.1)	279(53.4)	45.5 (8.3)***
3. Dissatisfaction	73(22.2)	45.2 (8.2)	130(24.9)	48.7 (9.9)**
4. Others	8 (2.4)	38.3 (5.6)	9 (1.7)	40.8 (4.5)

Worrisome affairs

1. Offsprings	67(20.4)	38.7 (8.9)	114(21.8)	44.3 (9.3)***
2. Health	123(37.4)	41.7 (7.8)	204(39.1)	44.8(10.1)**
3. Death	36(10.9)	40.5 (6.3)	83(15.9)	45.3 (9.2)**
4. Economy	83(25.2)	44.1 (8.6)	93(17.8)	47.5 (7.8)
5. Social activity	7 (2.1)	37.7 (6.2)	1 (0.2)	40.0 (0.0)
6. Others	13 (4.0)	32.2 (3.7)	27 (5.2)	39.0 (9.0)***

Security system

1. Satisfaction	109(33.1)	41.2 (8.5)	174(38.3)	45.1 (9.5)***
2. Ordinariness	164(49.8)	40.9 (7.8)	266(51.0)	43.9 (8.8)***
3. Dissatisfaction	56(17.0)	41.6 (9.7)	82(15.7)	48.1(10.8)***

*: $p < 0.05$ **: $p < 0.01$ ***: $p < 0.001$.

고 찰

본조사 결과 남녀노인 양군간에 불안의 평균총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Zung¹⁴⁾과 왕¹⁶⁾이 발표한 정상인 여자군과 정¹²⁾이 발표한 여학생과 여성근로자의 결과 보다 다소 높은 성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노령화에 따른 정리 및 심리적 변화 자체 만으로도 불안이 상승된다¹⁷⁾고 볼수 있다.

불안척도의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위는 남녀노인군 모두가 진만나기, 우려, 호흡곤란, 안전부절 및 불면증으로 순서만 다소 다를 뿐 항목은 같았다. 또 불안척도의 하위 성적도 남녀노인군에서 졸도감, 두려움, 공황, 적면, 진전증으로 동일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증상면에서 남녀노인의 불안 양상은 도시나 농촌 어디서나 대동소이한 상태임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성적은 이¹⁸⁾와 정¹²⁾이

정상인 및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때 불안증상의 상위 및 하위 항목에 있어서 동일한 성적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의 불안양상에 유사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바 추후 더 연구해 볼 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여성군에서 불안감, 두박움, 정신적불쾌, 전신통증, 피로감, 졸도감 및 불면증등의 불안증세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생활여건상 여자노인이 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척도상 총점이 50 이상인 사람이 남자노인은 14.6%, 여자노인이 29.4%로서 전체적으로 23.6%였는데 일반인의 불안신경증 발병빈도 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신경증이 높은 노인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사춘기와 같이 고독과 빈민이 가득찬 시기로서 제2의 자아발견의 시기라고도 하며 노년기는 죽음과 직면한 나머지 생존의 의의와 목적을 심각하

게 되어서 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시기보다도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크게 대두된다고 하는 바¹⁷⁾와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노인들이 처해있는 여건에서 어떠한 사회정신의학적 요소가 불안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가지 요소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기집인 경우가 전체노인의 78%로서 혼¹⁸⁾이 보고한 80%와 비슷한 결과이다. 성취도에서는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여자노인에서 더 많았다. 부양자벌르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92.0%로서 박¹⁹⁾의 75.6%보다 높았으며 일본 75%, 덴마크 20%, 미국 28% 및 영국 42%에 비하여 자녀와 동거율이 월등히 높았다¹⁹⁾. 그러나 가족개도의 변화와 관련한 인구의 도시집중 경향은 1970년도 이후에 두드러져서 1980년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²⁰⁾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핵가족화를 암시해 주고 있다. 자식들이 노부모와 이별을 하거나 성장지를 벗어나서 노부모를 모시고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노인들의 고독과 배신감을 조장하게 되어 성격은 비타협적이거나 퇴행적으로 되기 쉽고 변해버린 주위 생활여건에서 적응이 어려워질 때 불안은 증가하게 된다²¹⁾. 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생활을 하는 노인은 32.9%로 박¹⁹⁾의 25.4%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월잡비는 1만원 이하가 남자 52.3%, 여자 63.3%로서 생계비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는 불안이 조장될 것이나 본 조사에서는 큰 의미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남녀노인중 58.6%가 생계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인문제연구소의 보고²²⁾에 의하면 월 1만원 이하가 조사노인중 43.2%라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용돈이 적을수록 생계비 문제에 곤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경력 및 취업문제를 보면 생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인이 22.1%로 일본의 40%보다 낮은 비율이며 1982년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노인인구중 취업희망율이 73%였고 현재 취업율은 18.3%에 불과한 결과²²⁾와 비교가 된다.

노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38.4%)였고 다음이 자녀문제(21.3%), 경제적문제(20.6%) 및 죽음에 대한 걱정(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²³⁾의 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근심이 없다는 노인(60%), 건강문제(16.4%), 가족문제(7.4%), 경제적문제(4.6%), 오래 살가봐 오히려 근심스럽다(1.9%)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문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노인의 종교는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 하는데 본조사에서 종교유무에 따른 불안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노인은 무종교가 55.9%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28.7%로서 불안이 심한 여자노인들이 종교에 더 의지하는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남녀노인 양군에서 무종교자가 39.3%로서 김²⁴⁾이 보고한 82.9%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으나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본다. 즉 노인학교에 출석하거나 건강문제로 보건소나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노인들 가운데 종교를 권유 받거나 종교에 의지할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노인들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3년 10월 부터 1984년 6월 까지 대구지할시와 경북 경산군의 각 1개 보건소에 내소한 노인과 서울특별시 에 있는 4개 노인학교에 출석한 60세이상 노인, 남자 329명과 여자 522명을 조사대상으로하여 Zung이 고안한 불안척도(SAS)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불안척도로 측정된 평균총점은 남자노인이 41.12였고 여자노인이 44.92로서 여자노인이 다소 높은 성적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할 수 없었다.

불안의 항목별 성적은 진땀나기, 우려, 호흡곤란, 안절부절, 불면등이 상위 항목이었고 졸도감, 공황, 공포, 진전, 적면등이 하위 항목으로서 남녀양군이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항목은 동일하였다.

남자노인군은 SAS 총점이 50점 이상이 14.6%였고 여자노인군은 29.4%였으며 전체노인중 50점 이상이 23.6%로서 일반인의 불안신경증 발병빈도보다 월등히 높았다.

불안과 관련된 사회정신의학적 여건중 남녀노인의 불안성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요소로는 직업유무, 부양자유무, 생업을 그만둔 기간, 현거주지역, 종교유무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 ($p < 0.01$)으로 평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1. 최인현 : 인구학적 측면에서 본 고령화사회. 사회복지, 75 : 217-231, 1982.

2. 윤종주 : 우리나라 노년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고찰. 현대사회와 노년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66-91, 1982.
3. Kaplan, H. I., and Sadock, B. J. :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Williams & Wilkins, Baltimore, 1985, pp. 1954-58.
4. 박광모·강복수·이성관 : 부모와 분거 자녀간의 상호연락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 : 28-39, 1983.
5. 원영조·박태용 :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노인복지연구소보, 1 : 5-6, 1977.
6. Butler, R.N. : Psychiatry and the elderly: An over view. Amer. J. Psychiat., 132 : 893-900, 1975.
7. Slater, E., and Roth, M. : Mayer-gross slater & roth clinical psychiatry. 3rd ed., Tindall & Cassel, Bailliere, 1972.
8. 이은주, 박종한 : 노인 정신질환자의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1(3) : 343-352, 1982.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80, p. 225.
10. 왕성근 : 정신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xiety scale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2) : 179-191, 1978.
11. 정성덕·민성걸·유계준·김주덕·유준 : 나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학회지, 15(1) : 73-82, 1982.
12. 정성덕 :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2(2) : 265-274, 1983.
13. Keeler, M.H., Taylor, C.I., and Miller, W.C. : Are all recently detoxified alcoholics depressed?. Am. J. Psychiat., 136 : 586-588, 1979.
14. Zung, W.W.K.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 371-379, 1971.
15. Verwoerd, A. : Clinical Geropsychiatry. 2n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84, pp. 31-34.
16. 이재광 : 근로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산업제해와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19(2) : 69-84, 1980.
17. Kaplan, H.I., and Sadock, B.J. : op. cit., pp. 2-12.
18. 혼미표 : 대구시 거주노인의 성별, 연령별 노화도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19. 박태용 : 재택노인의 생활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복지연구, 1 : 25-42, 1978.
20. 극무춘리 기획조정실 : 청소년 백서. 신일인쇄사, 서울, 1981, pp. 230-231.
21. 김해은 : 산업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와 교육. 노인복지연구, 2 : 55-74, 1979.
22. 김성순 : 노인문제. 중앙일보, 서울, 1984, pp. 61-64.
23. 허 정 : 노인문제. 중앙일보, 서울, 1984, pp. 120-121.
24. 김상규 : 세계제국의 노인생활(한국편). 노인복지연구, 3 : 1-41, 1980.

—Abstract—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Aged by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Jung Hoon Lee, Byung Tak Park, and Sung Do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Pock Soo Kang and Jong Hak Chu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on anxiety, using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SAS), on the subjects of 329 men and 522 women of 60 years old and old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8 months from November 1983 to June 1984 in the area of Seoul, Taegu and Kyungsan Gun, Kyungpook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s of total anxiety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of men and women. The anxiety scores in items of sweating, apprehension, dyspnea, restlessness and insomnia were relatively high in both groups. The scores of faintness, panic, fear, tremor and facial flushing were low in both groups.

Among 329 men, 48(14.6%) showed rather serious anxiety level of score 50 or higher, while 153 of 522 women (29.4%) showed the same score.

Among these psychosocial factors, supporter, living place, religion and security system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anxiety scores in both groups ($p < 0.01$).

—부 록—

The Self-rating Anxiety Scale (SAS)

※ 지난 한주일 동안에 다음 질문의 각 항목이 당신의 경우와 비슷한 란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내	용	아 니 다	매 로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비 교
1.	Anxiousness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1	2	3	4	
2.	Fear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1	2	3	4	
3.	Panic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줄을 모른다.		1	2	3	4	
4.	Mental disintegration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다.		1	2	3	4	
5.	Apprehension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4	3	2	1	
6.	Tremors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알절부절하다.		1	2	3	4	
7.	Body aches and pains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1	2	3	4	
8.	Fatigue	나는 이유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1	2	3	4	
9.	Restlessness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4	3	2	1	
10.	Palpitation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1	2	3	4	
11.	Dizziness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을 한다.		1	2	3	4	
12.	Faintness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1	2	3	4	
13.	Dyspnea	나는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다.		4	3	2	1	
14.	Paresthesias	나는 손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1	2	3	4	
15.	Indigestion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1	2	3	4	
16.	Uninary frequency	나는 소변을 자주 본다.		1	2	3	4	
17.	Sweating	내 손은 보통 덥고 땀이 나지 않는다.		4	3	2	1	
18.	Facial flushing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1	2	3	4	
19.	Insomnia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4	3	2	1	
20.	Nightmare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1	2	3	4	